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것이 불성



인환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다같이 합장하시고 큰 소리로 인사를 나누시
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지난 9월 11일, 도
선사 호국총회원회는 ‘고승 대덕 초창 대법회’ 두
번째 순서인 인환(印玄)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7000여 명의 대중이 한자리에 모였다. 토닥토닥 대
중전 지붕을 울리는 빗소리와 안개에 싸인 삼각산
을 배경으로 법회는 시작됐다.

최근 도선사를 비롯, 서울 불광사와 부산 범어
사, 대구 동화사 등 전국 각지의 유명 사찰에서 고
승 초창법회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법회는 재가
불자들이 임부러 먼 곳까지 찾아가지 않고도 큰 스
님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흔하면 귀한 줄 모르는 것이 중생의
마음일까? 여러 법회를 찾아다니다보면 “전에 하
셨던 말씀이잖아” “스님들 법문은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저 ‘큰스님’을 가까이서 봐있
다는 사실 하나로만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
다면 스님들의 법문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하는지를 스님께 먼저 여쭙었다.

법문 들을 땀 분별심 버려야

“보조 스님은 <초법심자경문>에서 법문을 듣는
데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부
류는 ‘아무리 법문을 들어봐도 나는 깨달음 같은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 또 한 부류는 ‘밤낮 들어봐도 그 말이 그 말이
다’ 하며 법문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법문
을 듣는 것은 생각을 가다듬어 마음의 양식을 얻
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때문에 법문을 들을 때
마음을 비우고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지 않아야 합
니다. 법문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나 염불도
모두 같은 이치로 해야 합니다.”

스님의 법문은 자연스레 ‘기도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졌다.

“요즘 경제난이나 입시문제가 해서 절을 찾
아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도
도선사에서 ‘7관세음 3일 기도’ 정진을 하고 계
시니, 관음기도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율바



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로 보고, 바로 듣는 것이 바로 불
성(佛性)의 작용입니다. 불성이란 어디 다른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자람 없이 보고 듣는
것이 불성인 셈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불성이 그
렇게 간단한 거야?’ 라고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셨지만
우리는 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판단대

로, 본래도 느낀대로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곱다
싫다... 쉼 새 없이 차별과 분별을 합니다. 시뻘말
로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지요. 흔들리는 마음으
로 보니 만사를 바로보지 못하고 판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고, 구하는 바가 있어 기도를 하면서도 ‘이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기도만 해도 기꺼워 입을
수 있는 것일까’ 하고 자꾸 의심을 하게 됩니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38> · 끝



테러 시대와 도병겁(刀兵劫)

러시아 남부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인질극이
어비규현의 참상으로 막을 내리면서 온 인류에
게 지울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 300여명
이 사망하고 400여명이 부상당했는데 대부분의
사망자나 부상자는 어린 학생이었다. 이번 인질
극을 벌인 테러리스트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어
린 학생들까지 인간 방패로 삼을 정도로 잔혹했
다. 정치 문제와 직접 관련도 없는 어린 학생들
이 체첸의 테러리스트에 의해 인질로 붙잡혀 공
포에 떨다가 폭발과 함께 희생된 것이다. 러시
아는 이에 피의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지금 국제 사회는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을
두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
고 있다. 우리 인류는 핵 폭탄의 위력을 잘 알고
있다. 1948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 폭탄은 수
백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그 어떤 대량
살상무기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선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
도 주변 4대 강국 중 미국, 러시아, 중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도발국가라

은 조금도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때로 사람이
찾아오면 두렵고 무서워 웃고 털이 거꾸로 설
 것이다. 그 때 7일 동안 도병겁(刀劍劫)이 일어
날 것이고, 그 때에는 사람이 손에 초목이건 기
와건 풀이건 잡기만 하면 다 도검으로 변한다.
도검의 날 끝은 아주 예리해 손을 대기만 하면
모두 끊어진다. 이리저리 다니며 서로 해친다.

그 중에서 어떤 죄 많은 사람은 칼로 서로 해
치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해 도망쳐 산이나 굴
속처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 7일 동안 숨
어 있으면서 스스로 마음으로 생각한다. 나는
남을 해치지 않을 터이니 남들도 나를 해치지
말라. 그 사람은 7일 동안 풀과 나무의 뿌리를
먹으면서 생존하다가 7일이 지난 뒤 다시 산골
에서 나온다. 그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만나게 되
면 기뻐하면서 말한다. 이제서야 산 사람을 만
났구나. 이제서야 산 사람을 만났구나. 마치 부
모가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아이들을 다시 만나
게 되면 기뻐 뛰면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것처럼
그들도 또한 이와 같이 기뻐 뛰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이 때의 사람들은 7일 동안은 서로
바라보며 즐기만 하다가 또 7일 동안은 서로 즐
겁게 놀면서 기뻐하고 축하한다. 그 때의 사람
들은 탐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다 지옥에

서로 죽일 생각만 하는 도병겁과 테러 님은 끝 상생하는 법 익히고 대량 살상무기 폐기해야

전국인 일본은 핵 폭탄은 없지만 원자력만 한다
면 언제든지 수십 기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
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도 핵무기 개
발 의혹을 사고 있다. 가능하면 상대국의 국민
을 최대한 많은 희생자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해치는 사
회를 도병겁(刀兵劫)의 세상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어떤 것을 도병겁이라 하는가? 이때의 중생
들은 다만 열 가지 악(惡)만 더하고 다시 열 가지
선(善)에 대해서는 이렇듯 듣지 못할 것이다. 이
에 선에 대한 이쁨도 없는데 하물며 선을 행하
는 자이겠는가? 그 때의 사람들은 부모에게 불
효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는 자가 곧 공양을 얻고 남에게 존경받으며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 때의 사람들은 목숨을
마치고 나면 축생 가운데 태어나는데 마치 지금
사람들이 현상에 태어나는 것과 같다. 그 때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해칠 마음을 품고 오직
서로 죽이려고만 하리니, 마치 사냥꾼이 저 사
슴 떼를 보면 오직 죽일 마음뿐이고 착한 생각

떨어진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성내고
서로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상대하며, 사랑하거
나 어진 마음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도병겁이라고 한다.’

서로 만나기만 하면 무기질 생각부터 하고 손으
로 만지기만 하면 무기로 변하는 도병겁의 사회
는 폭력과 살생이 난무하는 사회에 다름 아니
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랑은 전혀 없고 오로
지 자신의 생명만은 보존하고 타인을 죽이고자
하는 도병겁의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
에서 자행되고 전쟁주의자와 테러리스트와 무
엇이 다를 것인가? 도병겁에서 살아 남은 사람
이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를 절감하듯이 우리도 상생하는 법을 소중하
고 이해하여 도병겁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전쟁과 테러에
의해 위협받고 있지만 부처님이 말하는 도병겁
의 시대는 아니라고 믿고 싶다. 도병겁에 이르
기 전에 우리는 기존의 무기는 폐기하고 더 이
상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지 말아야 한다.

■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연재를 마치고 다음호부터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을 실습니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건강정보 은행석온열복대

수험생에게 최고 선물로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생명의 빛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생명의 기**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70°C 이상의 강
한 열과 생육광선이 방사되어 원적외선 “침”을 갖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가볍게 두들겨 주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및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결림등을 자연치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으로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건강을 나누는 (주)금강다터에서 북한 3대명산품으로 소량만 생산되며 일부 고위층만 사용
하는 세계최고의 금강약들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은행석 베개, 불
행석 목걸이를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판매되어 사용자들에게
좋은 반응과 가격값은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은행석을 베개속에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예방되며 기억
력이 살아나고 활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하안압을 낮추어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다섯시간만 주무셔도 여덟시간 잔것과 같은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늘~최
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24시간 작용하는 은행석 목걸이와 같이 사용하시면 어깨, 목의
빠근함을 부드럽게 하며 그 효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는 분이나 의자에 장시간동안 앉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허리교정,
디스크 치료 및 부족한 기억회복 ※ 허리통증 완화 ※ 허벅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 수없이 부족한 수험생 (특히 여학생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문의전화(주)금강다터(02)3210-3170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영애

합격기원 디지털불경 룸비니

2000만 불자님의 필수품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계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룸비니와 함께 기도정진시 부처님의 자비로 합격의 영광을

최고의불경! 선물로도 최고!

룸비니는 담배 곱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다. 불자라면 누구나 사찰, 높은 산 등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께서는 합격
기원을 위하여 기도 정진시 디지털 불경 룸비니와
함께 기도정진 하시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자
비로 수험생에게 합격의 영광을, 불자님에게 대량
명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의 심금을 울린 효
동선과 스님의 특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
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합격기원 3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 패키지: 디지털불경 룸비니, CD2개
테이프 8개, 특별가 58,000원
(패키지1에서 테이프 3개시 50,000원)
- 패키지: 디지털불경 룸비니 CD 1개
특별가 39,000원
- 문의전화: 02)3210-3178
- 입금계좌: 농협(1143-12-049474 송영희)
-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룸비니에 관동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규격 8.5×5.2×2.0cm) 가격 58,000원

목경 : 효동선각스님
테이프 : 8ea set
가 격 : 20,000원
C : 2ea set
가 격 : 10,000원

수험생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와 靈驗의 金剛念珠

합격의 영광을 금강 필승 염주

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
은 마음의 안정이다. 시험준비를 하는 동안 마
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금강필승염주
를 수험생방 또는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氣로 신기하리만큼 마음의
안정을 주며 필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합격
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필승
염주입니다. 북한의 세계최고 금강약석이 주
성분이며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3%의 높
은 원적외선, 강함음이온 등이 방사되어 건강
에 최고이며, 북한 3대 특산품으로 평안도 명
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금강염주입니다.

▲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선물로도 최고! 성물에도 최고!

※ 수험기간에 금강염주1set를 구입한 분에게는 은행석 베개를 1인용 및
디지털불경 룸비니를 추석명절 기념으로 10월 30일까지 증정합니다.

- 12단주, 108, 손목염주 225,000원
- 108염주, 12단주 195,000원
- 12단주, 손목염주 110,000원

※ 별도 구입시 가격표 ※

- 108염주 135,000원
- 12단주 85,000원
- 손목염주 38,000원

-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 중환자로 투병중인 분
- ◆ 건강(氣)이 약하신 분

금강염주는 생활할 분이나 절안식후 사용하세요.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 합니다.
◆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金剛念珠社 서울시 중로구 관훈동 177 대흥 8/0 406호
전국대리점오염 사점매장, 불교용품점, 개인사업자

법문 청하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 부처님 말씀 전해

인환 스님은 "이왕 신문에 낼 거면 크고 예쁘게 내줘요." 취재정착을 드리자 밝게 웃으며 흔쾌히 응해 주시는 인환 스님은 장난기 많은 개구쟁이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엄한 스승 같기도 하다. 오랜 기간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노하우 덕분일까? 스님의 법문은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엄중함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아무리 불법이 거룩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야 쓸모가 있다"는 스님은 "쉬운 법문이라고 해서 낮은 수준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한다. 74살이라는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법문을 청하는 자리라면 전국 어디든 마다 않고 찾아가는 것도 '불자들의 근기에 맞는' 법문한 구절이라도 더 들려주기 위해서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두 시간 동안 경전 독송과 참선, 108배 참회수행을 하는 인환 스님은 1931년 평남 원산에서 태어났다. 1·4 후퇴 때 부산으로 내려간 스님은 한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52년 부산 선암사로 옮겨와 원히 스님을 은사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득도했다. 56년 해인사 금강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았고 64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71년 일본 고마자와駒澤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을, 75년 스님의 신분으로는 국내 최초로 도쿄(東京)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72~76년 조계종 재일총합회 부원장을 역임했고 76~81년 캐나다 토론토 대각사를 창건해 해외 포교에 앞장섰다. 82년 귀국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선학과 교수를 맡아 96년 정년퇴임 때까지 후학 양성에 매진했으며, 교수 퇴직금과 월급 등을 장학금으로 쾌척하는 등 후학들의 귀감이 됐다. 현재 서울 경곡사에 주석하며 전국의 법회 현장에서 법문을 전하고 있다. 저서로는 <신라 불교연구> <한국불교계율사상연구> <저기 도망가는 달마 잡아라> 등이 있다.

기도의 3단계

- ① "도와주세요" 절박한 마음
- ② 타인 위해 기도하는 마음
- ③ "기필코 깨달음 얻겠다"

다. 이제 이러한 의심을 내려놓으시고 지금 일러드리는 세 가지 단계를 자신의 기도와 견주어 하나하나 짚어보십시오.

기도를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가 배고프고 불편하면 울음을 터트리듯,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부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처님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때

잡념 생기면 화두로 마음 돌려야

달리는 심정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상황에서 불·보살님에게 의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면서도 밤낮 이 생각만 하는 것은 아이가 머리가 큰 후에도 힘든 일만 있으면 울며 부모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때 두 번째 단계로 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 자신만을 위해 소원을 비는 것에서 벗어나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체중생을 조건 없이 제도해주는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잘되겠다, 우리 아들만 좋은 대학 가야된다,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과욕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대중들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중생이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자연히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득다라삼막삼보리'를 성취하는 기도가 되는 단계입니다. 경계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 내 마음을 부처님과 똑같이 깊고 바른 반야(般若)의 마음으로 돌려 놓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다 어느 순간 진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순간 과거도 미래



기필코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다보면 심매에 들게 되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하는 인환 스님.

도 떨어져나가고 오직 그 순간만 남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물론 초심자들은 "~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 기도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원을 기도를 시작할 때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자신의 소원을 중언중언 되뇌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보살님이 소원을 못 들었을까봐 자꾸 되뇌는 겁니다? (대중 웃음) 이러한 것은 일종의 번뇌요 망상이고 기도의 결실들이 될 뿐입니다. 오직 '관세음보살' 할 뿐, 거기에 어떤 단서나 조건을 붙이면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의 큰 방편이 있으니, 잡념과 졸음입니다. 물론 초심자들에게는 잡념과 졸음이 끊임없이 덮치게 마련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쉼 없이 번뇌 망상을 피웠으니까요.

하지만 잡념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때마다 일면 호흡이나 화두로 마음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정념(正念)으로 돌리고 또 돌리다 보면 한 곳으로 집중하는 순간이 오게 되고,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

니다.

기필코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보면 '무념(無念)'의 상태가 됩니다. 곧 일념(一

일념으로 가득찬 무념 기도 하세요

념)이 가득 찬 무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종기가 빠르게 돌아가면 남게가 보이지 않듯, 번뇌 망상이 끼여들 틈이 없는 상태인 무념으로 들어가면 부르는 나도, 불리는 관세음보살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때 비로소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삼매(三昧)라고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할 때도, 염불을 하면 염불삼매, 독경을 하면 독경삼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삼매에 드는 기도법을 알아오세요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법문이 끝나자 불자들은 밝은 얼굴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이제 다시 한 번 발심해 진정한 기도 정진을 하겠다"는 간절한 발원과 함께,

글=여수령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법연 스님의 스님이야기

해공 스님 (上)

해공(海空) 스님은 태고종총무원의 부원장 소임을 맡아 잠시 나누어졌던 마음을 모으고 종단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스님은 태고종의 종정을 책임한 백암 스님의 친아들이다. 항상 온화한 얼굴로 총무직원들을 대하고 자상한 미소로 후배스님들의 자문에 응하기 때문에 늘 찾는 이가 많다. 원칙을 중시하는 스타일 이면서도 어우러짐의 미학을 발휘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인품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태고종이 조계종의 종명을 사용하고 있던 시절에 관찰했던 수많은 절을 다 내어주고 종단이라는 이름도 쓰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단지 3개의 시설 사람만으로 종단을 등록해 오늘에 이른 종단이기에 집권력과 재정구조가 약한 것을 걱정하던

뒤에 한 사찰 주지가 조금 보완할 서류가 있다고 돌려달라고 하더니 그 서류를 다시 가져오지 않아서 꼭 있어야한다고 설득하느라 헛바다에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스님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당시 경찰이나 구청에서 태고종에 등록하면 손해가 많을 것이라 하고 협박하는 듯한 정보를 주어서 그랬던 것 아닐까요? 그 때 3개 사찰에서 이제 2천 5백여 곳이 되었지만 작은 사찰사암이 대다수이고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다 보니 형편상 그렇게 된 것이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마음을 조금 더 내고자 합니다."

정작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뜻있는 곳으로 쓰이기를 누구보다도 더 원하고 있을 해공 스님은 백암 스님의 뜻을 이어서 종단운영기금으로 많은 돈을 더 회사하겠다고 발표하여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역시 그 문순답다고 칭송하였다. 스님은 또한 태고종 스님들이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사찰중의 하나인 북한산 태고사에 있는 태고보우국사 부도 주변의 땅을 사



그림·문병성

백암 스님께서 종단에 회사금을 많이도 내셨다. 그래서 종도들이 정승을 많이 했는데 그 소중한 기금이 특별하게 의미있는 곳에 쓰이기보다는 그저 총무원의 운영기금으로 쓰이기 일쑤였다. 공찰에서 살 때는 종단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니까 잘 따랐지만 사실상 체제로 들어선 종단구조에서는 소유권이냐 운영권이냐 100퍼센트 자율권을 주다보니 분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아 총무원들 월급주기에다 바빠 총무원 재무부장을 맡으면 월말에 돈 구하려 다니느라 코피가 쏟아지기 일쑤였다. 그러다보니 목적 사업보다도 일반 사업이나 운영비로 쓰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속 모르고 말하기 좋아하는 종도들은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10여년 전 중앙총회에서 총회위원들이 나서서 총무원을 징책했다. 그때 해공 스님이 일어나서 말했다.

"저도 저희 스님께서 회사하신 성금이 그렇게 쓰여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단의 형편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덕암 큰스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970년도에 우리 종단을 처음 문교부에 등록할 때 신청서에 3개 사찰을 집어넣었는데

원칙 중시하면서도 자상 주변엔 늘 사람들로 북적

서 성역화할 수 있도록 종단에 기증하였다. 해공 스님이 이렇게 종단을 향한 지극한 마음을 낼 수 있었던 기연(奇緣)이 있다. 백암 스님께서 동화사에서 동진출가해 열심히 수행하던 시절을 보내고 양진암, 내원암 등에서 소인 살다가 태고종에서는 법난이라 하고 조계종에서는 정화라고 하는 승단분규를 겪으면서 다 내어 주고 대구 시내에 내려와 살다가 동화사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동화사 뒷산인 팔공산을 다 뒤져서 갖바위부처님을 찾아내었다. 그때의 신심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당시 갖바위부처님은 소나무와 참나무가 우거진 속에 숨어(?) 있었다. 요즘엔 갖바위부처님을 친견하려고 전국에서 신도들이 몰려들어 밭디밭 틈이 없을 지경인데 당시에는 산을 오르내리던 사람도 없고 신도도 없었기 때문에 수행에는 안성마춤이었지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아침에 밭을 지어서 불기에 답아서 올라가면 다 식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주변을 정리하고 땅을 일부 파내 움푹하게 지어 기도를 하였다.

해공 스님은 연세가 드신 백암 스님 보다는 자신이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랫집에도 내려오지 않고 열심히 기도정진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뒤가 묵직하고 힘이 빠지더니 하혈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였더니 직장암이라는 것이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종합병원을 몇 곳 데 더 다녔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계속)

■ 관악산 자운암 상임법사

마하몰에서 알찬 추석선물용품을 만나보세요

건강식품

- **홍삼액(60포)** 120,000원
· 함량 : 홍삼 71.58%(국산)
· (홍삼 70%, 홍미삼 30%)
· 80g × 60포
- **농협홍삼정과(900g)** 177,000원
· (400g) : 79,000원
· 홍삼(국산 4년근 이상)100%
- **홍삼진액(40포)** 88,000원
· 5년근 홍삼 99.01%(국산)
· (홍삼 20%, 홍미삼 80%)
· 100g × 40포
- **홍삼정 골드** 178,000원
- **홍삼정(120g)** 70,000원
- **홍삼정(240g)** 140,000원
- **홍삼절편(200g)** 46,000원
- **홍삼무설탕캔디** 25,000원
· 200g × 3ea
- **홍삼유가** 16,000원
· 850g × 2ea

친목식품

- **항적원 선물세트 1호2종** 35,000원
· 혼합장아찌 1kg, 고추장 1kg
- **항적원 선물세트 3호3종** 30,000원
· 청국장기부 200g × 3개
- **항적원 선물세트 6호2종** 50,000원
· 상향버섯고추장 1kg, 상향버섯김장 1kg
- **항적원 선물세트 4호2종** 50,000원
· 덕덕장아찌 1kg, 매실장아찌 1kg
- **항적원 선물세트 5호5종** 48,000원
· 청국장기부 200g × 3개, 청국장면 200g × 2개
- **상향버섯김장(1kg)** 28,000원
· <고추장특조기부특조원한해운대기부김장면<한우>

건강용품

- **솜매트(1인용)** 150,000원
· 끈기있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매트
· 침속백탄 5kg
- **수행화** 40,000원
· 겸정, 외색
- **희망석 어깨찜질팩** 66,000원
· 표피· 무독성 PVC sheet (항균 99.9%의 금기부 침기)
· 내용물 : 의문석기부, 풀, 수지
- **솜베개(높이800)** 40,000원
· 후두부, 목, 어깨의 혈액순환 원활촉진
· 뇌신경 안정으로 숙면할 수 있음
· 수면중 공기정화효과
- **솜방석** 35,000원
· 통기성확보, 원적외선방사
· 흰색, 검정
- **희망석 찜질팩(신형)** 39,800원
· 기존제품의 두배만 이상의 의문석원료 사용
- **37°(氣)베개** 60,000원 → 40,000원
· 체온만으로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기(氣)양석(Life Soul)이 부착
· 아이보리, 하늘색
- **천연연꽃비누** 15,000 (개당)
- **세트(12개)** 150,000원 · 고급식물성 오일과 천연재료를 첨가

마하몰에서 알뜰 쇼핑하세요..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삼성, 신한, LG, BC카드 5만원이상 결제시 무이자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 삼성 : 3개월 무이자할부(2004. 12. 31까지) ● 신한카드 : 2~3개월 무이자할부(2004. 12. 31까지) ● LG카드 : 3개월 무이자할부(2004.9.30 까지) ● BC카드 : 2개월 무이자할부(2004. 9. 30까지)
 ※ 마하몰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동아일보사, 한국경제신문사, 전자신문사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선임자원부가 후원하는 'eTrust 인증제도' 인증 심사결과, 인증업체우수등급을 부분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블로그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02-732-1520** 주문전화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블로그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